

#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과정의 비판적 검토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김중신\*

## <차례>

- I. 들어가는 말—논의의 시발
- II. 2007~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
- III.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과) 개발의 논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V. 보론 및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논의의 시발

교육과정은 교과의 시작이자 종결이다. 시작은 교육과정이 교과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계획하는 것이어서 그렇고, 종결은 그 계획이 올바로 실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원론적 측면에서만 그러하다. 우리의 교육과정은 시작과 종결이 뒤섞여 있다. 시작하지도 않은 것을 종결지어야 하며, 실행하지도 않은 것을 평가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1997. 12)을 개편한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12)이 수시 개정이라는 명목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12)에 의해 2년 만에 수명

---

\* 수원대학교 국문과

을 다한 바 있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사교육비 절감, 수능 비중 축소,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미명하에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2011년 1월 25일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에 부합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 필요에 따라 학년군 개념의 도입, 교과내용 20% 감량을 통한 필수 성취기준의 전면 조정, 9년 공통 교육과정 및 고교 3년 선택 과정 개정의 당위성을 들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당시 총론과 함께 각급 학교의 교과목에 대해 세부안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중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이 교육과정에 준거한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선택과목 재구조화안(이하 재구조화 안)을 포함한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고시함으로써 일선 학교는 물론 교과 교육 담당자들마저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sup>1)</sup>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별 교육과정 확정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다시 개편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미 교육과정 개정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교육과정은 특정인의 소견이나 학문적 당위성과는 무관하게 국가적 교육의 실행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구조화안이 갖고 있는 참신성 및 체계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당위성이나 교육 내용의 타당성,

1)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12)에 따라 교과서 검정 기준이 발표되었고 각 출판사에서는 2011년 3월에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하여 검정 교과서를 출원, 동년 6월에 최종적으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2011년 1월 25일 교과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에 의하면 2013년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많이 들인 출판사 및 교과서 저자들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부가 되기도 전에 사장되어버리고, 교과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를 6개월 만에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대해 2011년 6월 29일 검정교과서 출판협의회 명의와 2011년 7월 12일 검정교과서 저자협의회 명의로도 하 일간지에 교과서 검정 제도의 졸속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 광고를 낸 바 있다.

교과 정체성 혼란 야기 등 다루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다만 다행인 것은 그간의 교육과정이 국가 기관(국립교육과정평가원)과 몇몇 교과 교육 전문가들의 논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비해,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이 정책연구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 고시하겠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 관련 학회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국가 기관이나 특정 단체가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하고 방대하며, 또한 그간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기에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학회 연합으로 연구 개발할 것을 합의하고 공모에 응하였다. 학회 연합이 주체가 되면 최소한의 공공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회 소속 전문가들의 중지에 의한 개정안이라면 토론회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기될 여러 갈등 요소들을 잘 봉합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도 공모에 응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학회 연합의 일원으로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한 필자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sup>2)</sup> 개정에 관한 논의의 추이와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는 학회 연합 개발이라는 취지에 따라 논의 과정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는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과 영역의 위상도 아울러 검토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 II. 2007~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어과 이수 과목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선택 과목으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 언어’ 등 6개 과목을 고시하

---

2)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에 따라 달라진다. 2011학년도 현재 ‘국어 과목’이 적용되는 전문 교과는 전국에서 2개교 2개 학과(문예창작과 등)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였다. 이에 대해 선택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일부 과목은 학교 현장에서 거의 선택되지 않는다는 문제점<sup>3)</sup>이 지적되어 소위 ‘미래형 교육 과정’이라고 일컬어지는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12)에서는 이를 개편하여 ‘국어, 화법과 작문 I, 화법과 작문II,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II, 문학 I, 문학II’ 등으로 개정, 재고시한 바 있다(이하 <표 1> 참조).

&lt;표 1&gt;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명칭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총론)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 개정 방향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과) <sup>4)</sup>
고시일	2007. 12	2009. 12. 23	2011. 1. 25	2011. 8. 6
성격	-7차 교육과정의 개편 -교과서 미개발	-총론과 각론 제시 -교과서 개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교육과정 개편 -선택과목 재구조화안 제시 -교과 교육과정안 공모	-학회 연합에 의한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교과서 개발
선택 과목	*국어(국민공통과정)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 언어	*국어(공통 선택) 화법과 작문 I 화법과 작문II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II 문학 I 문학II	국어 I 국어II 국어 사고와 표현 국어 탐구와 이해 국어 문화와 창의 고전	국어 I 국어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총론 개정과 함께, 국민공통교육 과정을 1~10학년에서 1~9학년으로 한 학년 축소하고, 고등학교 국어 과

3)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어과 고교 선택 과목별 이수 비율은 화법 6.0%, 독서 26.9%, 작문 20.3%, 문법 6.2%, 문학 40.6%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 2009. 8. 17.

4) 학회 연합에 의한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자료집(2011)에 표기된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잘못된 표기이다. 총론이 개정되지 않고 교과별 교육과정만 개정이 된 것이므로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정확한 표기이다.

목을 모두 선택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별 내용 체계는 국어의 내용 영역 간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결합하였을 뿐, 결합의 내재적 논리가 미약하여 화학적 결합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개정안에 따라 교과서 개발 작업을 한 교과 전문가들은 교과 내적 필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과 외적 정책 논리에 따라 결합된 선택과목 체계는 일선 학교 교육의 과행은 물론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비판은 논외로 치더라도 교육 당국의 정책적 필요<sup>5)</sup>에 의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재구조화 논의가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협력진이 구성되었다(2010년 9월).

연구 협력진이 지적한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 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에 대한 세부 성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학년 과목인 ‘국어’가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성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총론의 취지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 축소, 학생의 진로,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 공통 교육과정 기간의 조정과 함께 학습 내용의 적정화(박순경, 2010) 등을 표방하였다. 그런데 선택과목 체계는 2007 개정 국어과 선택 과목의 과목수를 축소하였을 뿐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에 따른 이수 경로, 적정 이수 과목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5) 2010년 8월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습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하에 2014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안에 의하면 수능의 ‘언어’ 영역을 ‘국어 A’(이과), ‘국어 B’(문과)로 2원화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안대로 추진하자면 2012년 이전에 교과 교육과정을 재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국어과 내용 영역 간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으로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과 같은 식의 결합은 과목 내용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것일 뿐 결합의 내재적 논리가 미약하다는 것이다.<sup>6)</sup>

이런 점 때문에 연구 협력진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 체계는 과도기적 체계라고 평가하였다. 연구 협력진은 수 개월간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선택과목 체계를 재구조화하였다. 이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에서 제시한 국어과 선택 과목을 재구조화(이하 재구조화안)하는 방향으로 크게 여섯 가지를 설정하였다. 이 중 중요한 것만 꼽아 보면,

첫째, 선택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 학습하는 과목이어야 하므로 국어과의 내용 영역별로 분리하여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기로 한 점

둘째, 국어 사용 능력을 총체적으로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 완결성’을 지니도록 ‘국어 I, II’→‘국어 표현과 사고, 국어 이해와 탐구, 국어 문화와 창의’→‘고전’ 등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는 점

셋째,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므로 과목별 내용 체계 구성을 국어활동의 실제가 지니는 총체성과 통합성이 구현되도록 한 점 등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 협력진의 제시한 재구조화 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교 보통교과 선택과목은 ‘국어 I’, ‘국어 II’, ‘국어사고와 표현’, ‘국어탐구와 이해’, ‘국어문화와 창의’, ‘고전’의 총 6과목으로 정한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어 공교육의 효과를

6) 이외에도 ‘화법과 작문 I, II’ 등은 ‘표현과 소통 행위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결합’한 반면 ‘독서와 문법 I, II’는 ‘이해와 탐구 행위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결합’함으로써, 기존 과목들의 재구조화에 있어서 일관된 논리와 관점을 취하지 못한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국어과 고교 선택과목재구조화연구보고서(2011. 1. 27) 참조.

증진시키고 사교육을 경감시키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교수·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와 내용을 구성하고자 의도이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10학년이 선택 과정으로 변환됨에 따라 ‘국어’ 과목의 성격과 특성이 선택교육과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어 I’과 ‘국어 II’를 신설하였다. 또한 ‘고전’ 과목을 신설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등한시되었던 고전 명문을 두루 다루게 한다. 이 과목은 교과서가 없이 제재 목록만을 제시하고 각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작품을 선정해서 읽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연구 협력진이 제시한 보통교과 선택과목의 재구조화안은 <표 2>와 같다.

<표 2> 보통교과 선택과목의 재구조화안의 일개

과목	성격	목표	대략적인 구성 방안
국어 I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국어과 내용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종합한 과목으로서 ‘국어 II’의 선수 과목	국어 활동과 국어의 구조, 국어 문화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익혀 비판적 창의적인 국어 활동 능력 및 태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듣기·말하기(화법), 읽기(독서), 쓰기(작문), 문법, 문학 5영역의 유기적 통합</li> </ul>
국어 II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국어과 내용을 종합한 과목으로 ‘국어 I’의 연계 과목	국어 활동과 국어의 구조, 국어 문화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익혀 비판적 창의적인 국어 활동 능력 및 태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의 생활이나 관심, 수준과 밀접한 성취기준의 설정</li> </ul>
국어 사고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문’+‘화법’</li> <li>-국어적 사고와 표현의 원리 및 국어 표현 활동에 대한 심화 학습을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국어과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li> </ul>	고등 수준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며 적절한 국어 표현 능력의 신장 및 태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요소들의 결합</li> <li>-중복되는 요소들의 통합 및 삭제</li> <li>-‘매체’ 요소 결합</li> </ul>
국어 탐구와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법’+‘독서’</li> <li>-국어, 국어 담화와 글, 국어 양식의 특성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국어과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li> </ul>	국어, 국어 담화와 글, 국어 양식에 대한 비판적 창의적인 탐구와 이해 능력 및 태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요소들의 결합</li> <li>-중복되는 요소들의 통합 및 삭제</li> <li>-‘매체’ 요소 결합</li> </ul>

과목	성격	목표	대략적인 구성 방안
국어 문화와 창의	-‘문학’+(‘매체’) -국어 문화의 특성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국어과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	국어 문화의 특성에 대한 비판적 창의적 이해 능력과 전통 계승의 태도 형성	-문화적 측면 강조 -‘매체’ 요소 결합
고전	국어 문화사의 고전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되 다른 국어과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	현대와 고대의 명문에 대한 비판적 창의적인 이해 능력 및 창조적 계승 태도 형성	-명작의 개념 및 범주(대 강화 방식) 제시 -이해, 감상 방법 제시 -사고력, 가치나 태도 차원으로 확장

교육당국은 연구 협력진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고등학교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을 토대로 하는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 개정방향’(2011. 1. 24)을 발표하고, 이러한 기본 방향에 의거 과목별 세부 성취 기준은 정책연구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발 및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 III.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과) 개발의 논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을 개발을 담당한 학회 연합의 연구진은 ‘교과교육과정 개정 방향’에서 제시한 선택과목 재구조화 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재구조화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재구조화안에 대한 토론회와 심의회에서 지적된 쟁점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목 명칭이다. 과목 명칭은 단순히 교과목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그치지 않고 해당 교과목의 성격은 물론 내용 범주까지 규정하게 된다. 재구조화안에 대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교육과학기술부 주최, 2011. 1. 13)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2011. 1. 18)’ 등에서 공

식적으로 제기된 ‘과목명의 생소함,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 미비’ 등과 같은 비판<sup>7)</sup>은 경청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어 I’과 ‘국어II’의 성격 규정이다. 재구조화 안에 따르면 ‘국어 I, II’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어’를 대체한 과목으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공통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수 단위가 축소됨으로써 이 과목의 성격도 재규정할 필요가 생겼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당시에는 국어과의 필수 이수 단위는 ‘15 단위 이상’이었다. 이에 기초해 연구 협력진은 ‘국어 I, II’ 이외의 과목을 1개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수능 비중의 경감화 방침(‘언어’ 영역 대신에 이과는 ‘국어 A’를, 문과는 ‘국어 B’를 치르겠다는 안과 수업 시수 절감 방안으로 인해 문과 15단위, 이과 10단위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어 I, II’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연구 협력진의 제안은 실현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과목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셋째, ‘고전’의 성격 규정이다. 재구조화안에 따르면, 이 과목은 이수 경로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대와 고대의 가치 있는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며, 재창조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성취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교과서도 없는 과목이 과연 일선 학교에서 선택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교과 개정안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과목 명칭에 대한 논의이다.

재구조화안의 선택과목 명칭은 다음과 같은 6개로 되어 있다.

7)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연구 협력진은 기존의 과목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현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국어 I, 국어II, 독서, 문법과 표현, 문학, 국어와 문화’ 등 6개 과목으로 재구조화한 안을 ‘부기(附記)’에서 별도로 제시한 바 있다.

논의과정	선택과목 명칭
재구조화안	국어 I / 국어 II / 국어 표현과 사고 / 국어 이해와 탐구 / 국어 문화와 창의 / 고전

재구조화안은 2009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두 개 영역의 결합(‘화법과 작문 I, II’, ‘독서와 문법 I, II’)이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정되었던 각 영역별 경계틀의 완고함을 허물고 선택 과목별 이수 비율의 기형적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역별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교과목을 실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재구조화안은 5개 영역(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이 영역별 특성에 따라 2단계 선택과목에 선택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즉, ‘국어 사고와 표현’은 ‘작문+화법’이, ‘국어 탐구와 이해’는 ‘문법+독서’가, ‘국어 문화와 창의’는 ‘문학+매체’가 주된 영역을 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고, 탐구, 창의’ 등은 특정 교과 영역만의 고유한 성격이 아니므로 과목의 성격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교과 영역을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선택과목에 고루 배분을 하는 것이 통합적인 언어 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교과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즉 5개의 교과 영역이 ‘국어 사고와 표현, 국어 이해와 탐구, 국어 문화와 창의’에서 고루 교육 내용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을 세 개의 교과목에 20%씩 균등하게 안배를 한다. 교과목명을 가로축으로 하고, 교과 영역을 세로축으로 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과목은 해체되고 5개의 영역이 3개 선택과목에 고루 배치되므로 교과 영역별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교과 영역의 전통적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세 개의 선택과목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다만, 선택 과목별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 과목의 성격을 ‘사고, 탐구, 문화’ 등을 중핵 요소로 삼는다.

한편, 재구조화안은 이미 교육당국에서 고시한 것이므로 이 안의 기본 취지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목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

구조화안 중, ‘국어 문화와 창의’는 기존 교과목 ‘문학’에 ‘매체’를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왔던 ‘문학’이라는 교과목을 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위한 과목이라는 비판도 존중되어야 한다. 게다가 ‘창의’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불확정된 것이므로, 과목명을 ‘문학’이라는 명칭으로 환원하기로 한다. 다음은 이상의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한 1차안이다.

논의과정	선택과목 명칭
재구조화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과 사고 / 국어 이해와 탐구 / 국어 문화와 창의 / 고전
1차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과 사고 / 국어 이해와 탐구 / 문학 / 고전

‘국어 표현과 사고’와 ‘국어 이해와 탐구’에서 ‘사고’와 ‘탐구’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우려가 있다. ‘사고’와 ‘탐구’는 국어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육 영역이기는 하나 ‘사고’의 구체적인 세부 영역이나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의 범주가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가 없으므로<sup>8)</sup> 일선 학교의 교과목명으로 설정하기에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불안정하다. 또한 ‘사고’는 범교과적인 내용인데 국어 교과목명으로 확정되었을 때 타 교과의 내용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 특히 ‘표현과 사고’라고 하였을 때 ‘표현’과 ‘사고’를 순차적인 언어 활동으로 이해하게 되면, ‘표현’이 마치 ‘사고’가 배제된 상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목에서 ‘표현’은 주로 화법 영역을 다루어야 하는데, ‘표현과 사고’는 화법이 사고를 하기 전의 표현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

8) 1994년에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등을 다루고, 이후 ‘창의적 사고’가 추가로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험칙에 의한 것이며 정식으로 학계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다만, 1차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세부 영역으로 ‘사고와 표현, 사실적 사고와 표현, 분석적 사고와 표현, 비판적 사고와 표현, 형상적 사고와 표현, 규범적 사고와 표현’ 등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학문적으로 공인된 바가 없으므로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렇게 된다면 마치 화법은 사고를 배제한 언어 활동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어 이해와 탐구’에서 ‘이해’와 ‘탐구’가 순차적인 언어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결과 1차안에서 ‘사고’, ‘탐구’를 제외한 과목명을 사용하자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다음과 같은 2차안이 마련되었다.

논의과정	선택과목 명칭
재구조화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과 사고 / 국어 이해와 탐구 / 국어 문화와 창의 / 고전
1차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과 사고 / 국어 이해와 탐구 / 문학 / 고전
2차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 / 국어 이해 / 문학 / 고전

2차안은 ‘사고’와 ‘탐구’를 제외한 과목명이다. ‘국어 표현’에서는 주로 ‘화법’과 ‘작문’ 영역이, ‘국어 이해’에서는 ‘독서’와 ‘문법’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화법’에는 ‘말하기’와 ‘듣기’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국어 표현’이라고 한다면 ‘듣기’ 영역이 완전히 배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어 이해’라고 하면 ‘국어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독서’ 영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고전’이라고 하면 통칭 ‘고전 문학’의 약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정진(正典)으로서의 고전이 아니라 고전 문학(古典文學)으로서의 ‘고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기능 교과 영역이 두 개씩 결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은 단독 교과목으로 설정되고, 게다가 ‘고전’도 고전 문학으로 주요 내용이 채워진다면 교과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수 단위도 축소되어 ‘국어 I, II’의 설정 논리도 무화되었으므로 ‘국어 I, II’를 단일 교과로 하고 ‘고전’ 과목을 폐지하여, 나머지 5개 교과목에 각 영역을 하나씩 설정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즉 화법과 작문, 독서, 문법, 문학을 각각 독립하여 한

과목으로 하되 ‘고전’을 폐기하자는 제안이다. 재구조화안에서 제기한 선택과목 틀 안에서 기능 교과 3과목(화법, 작문, 독서)과 지식 교과 1과목(문법)이 무리하게 결합을 하는 것보다 각기 별도의 교과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교과목의 정체성 확보라는 점에서 온당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러한 논의 끝에 마련된 것이 3차안이다.

논의과정	선택과목 명칭
재구조화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과 사고 / 국어 이해와 탐구 / 국어 문화와 창의 / 고전
1차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과 사고 / 국어 이해와 탐구 / 문학 / 고전
2차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 / 국어 이해 / 문학 / 고전
3차안	국어 / 화법 / 독서 / 작문 / 문법 / 문학

3차안은 교과 영역별로 하나의 교과목을 설정하는 것이다.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별 영역을 심화시킨다는 면도 있으며 성격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영역을 무리하게 결합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3차안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매체 언어’ 등으로 고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이를 개선한 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다. 게다가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과서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수 단위가 대폭 축소된 현 상황에서는 과목별 선택의 편중 현상을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3차안은 재구조화안은 물론이 거니와 과목별 20% 감축이라는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 개정 방향’도 부정하는 안이므로 교육계 안팎의 비난을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등 4 과목을 결합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체제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이 이미 고시된 바 있고 교과서도 개발이 완

료되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는 과목별 결합 체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나머지 세 과목은 그대로 존치하되, ‘고전’은 고전 문학으로 오인될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고전과 교양’으로 명칭을 개정하기로 한다. 이에 의한 안이 4차안이다.

논의과정	선택과목 명칭
재구조화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과 사고 / 국어 이해와 탐구 / 국어 문화와 창의 / 고전
1차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과 사고 / 국어 이해와 탐구 / 문학 / 고전
2차안	국어 I / 국어II / 국어 표현 / 국어 이해 / 문학 / 고전
3차안	국어 / 화법 / 독서 / 작문 / 문법 / 문학
4차안	국어 I / 국어II /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 문학 / 고전과 교양

4차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총론)의 선택과목 체제를 수용하는 안이다. 과목별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고 무리한 면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현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재구조화안이 이상적이긴 하나 아직 교육계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차기 교육과정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구조화안 중, ‘국어 I, II’와 ‘고전과 교양’을 수용하기로 한 점은 미완의 성과라고 하겠다.

둘째, ‘국어 I’과 ‘국어II’의 성취 기준 설정 문제이다.

주지하듯 국어 능력은 범교과 학습이나 대학 진학 후의 학문 활동, 사회 진출 후 직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과목 체제로 운영될지라도 국어과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는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재구조화안도 이를 고려하여 6개 선택과목 중에서 2개 교과목을 ‘국어 I’과 ‘국어II’로 설정하고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설정토록 하였다. 이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의 내용을 종합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어’를 대체하고 재구성한 과목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어 I’과 ‘국어II’를 연계 과목으로 설정하여

두 과목의 필수 이수를 강조하고 있다.<sup>9)</sup>

	국어 I	국어 II
재구조화안	국어 활동, 구조, 문화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익혀 비판적 창의적인 국어 활동 능력 및 태도 형성	

이는 총론에서 규정한 선택 교과와는 위배되는 면이 있지만, 재구조화안의 과목 설정의 취지는 존중할 만하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수 단위가 변경된 결과 기존 고시안에서 제시한 3단계 이수 경로가 실현 불가능하게 된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수 단위 축소 방침에 따라 국어 1, 2도 6개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구분짓되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이과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언어 활동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이 공통의 표준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는 ‘공통 중핵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sup>10)</sup>’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공통 중핵 기준’에 의한 자국어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언어사용 능력을 기름으로써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과 직업 세계에서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국어 I, II에서도 고교 졸업 후 택하게 된 직업이나 학업 활동에서 원활한 언어 생활을 이루기 위하여 ‘직무 수행’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 부담 경감을 이유로 하여 개편된 이수 단위가 줄어듦에 따라, 이과생들이 이수해야 할 단위는 모두 10단위로서 선택과목 중 2개만 이수하면 된다. 따라서 ‘국어 I’과 ‘국어II’는 이과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국어 수업의 전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국어 화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국어 능력을 담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10) 미국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시행하면 균형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통 중핵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설정하여 다음 사항들이 균형적으로 강조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① 작품 읽기와 정보텍스트 읽기, ② 서사적 글쓰기와 정보—설명적 글쓰기, ③ 문학과 비문학의 비판적 분석에 초점, ④ 어휘습득의 강조, ⑤구어 소통, 협동, 듣기 기능 강화

이런 논의 끝에 1차안은 재구조화안의 전체적인 구성 방안과 동일하게 하되 성격 및 목표를 ‘교양 일반’과 ‘직무 수행’으로 정하였다.

1차안

	국어 I	국어 II
재구조화안	국어 활동, 구조, 문화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익혀 비판적 창의적인 국어 활동 능력 및 태도 형성	
1차안	교양 일반	직무 수행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실정에서 국어II의 성격과 목표를 ‘직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활동은 대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되는데, 이는 공통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졌던 것이라 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언어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학 영역과 관련된 직무 수행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교양 일반’과 ‘직무 수행’은 긴밀하게 연계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없어 과목간 연계성을 강화한 항목으로 ‘교양’을 설정하고, 세부 항목에서 둘을 변별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국어 I	국어 II
재구조화안	국어 활동, 구조, 문화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익혀 비판적 창의적인 국어 활동 능력 및 태도 형성	
1차안	교양 일반	직무 수행
2차안	교양(일반)	교양(전문)

2차안은 국어 I, II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다. ‘교양’을 연계 항목으로 삼아서 국어 1에는 ‘일반’을, 국어2는 ‘전문’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어 I, II의 성격을 지향점을 각각 ‘교양(일상)’과 ‘교양(전문)’으로 한

다.<sup>11)</sup> 이를 위해 각 교과 영역에서 1~9학년에서 습득한 교과 영역의 단순 반복이 아닌 교양 습득을 위한 구체적인 성취 기준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때 1~9학년의 내용 체계에서 제시한 ‘지식, 기능, 태도(맥락)’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으로 하되, ‘국어 I’과 ‘국어II’는 체계성과 위계성을 갖추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의 표는 ‘국어 I 과 국어II’의 내용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국어 I 과 II의 내용 체계 비교

영역	국어 I – 교양일반)			국어II – 교양(전문)		
	지식	기능	태도(맥락)	지식	기능	태도(맥락)
화법	• 표준 화법의 이해	• 공감적 경청과 문제 해결	•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 토론의 본질과 원리	• 비판적 듣기와 평가	• 효율적인 매체 자료의 활용
작문	• 작문 과정의 이해	• 내용의 생성과 조직	• 표현과 고쳐쓰기	• 작문 맥락의 이해	• 정보의 조직과 논거의 이해	• 매체의 특성과 글쓰기의 원리
독서	• 독서의 특성	• 독서 상황과 독서의 방법	• 자율적 독서의 생활화	• 독서 문화의 이해	• 독서와 문제 해결	• 매체 자료의 분석과 비판적 태도
문법	• 음운 체계의 이해	• 어휘의 이해와 활용	• 읊바른 표기 생활	• 문장과 담화의 이해	• 국어의 변천과 발전 방향	• 한글의 가치와 국어 사랑
문학	• 문학 갈래의 이해	• 작가의 개성과 문학 감상 능력	• 문학과 사회적 소통	• 한국 문학의 전승과 흐름	• 문학의 효용과 문학 활동	• 작품의 가치와 비평적 안목

셋째, ‘고전’의 성격이다.

재구조화안은 고등학생들의 인지 능력에 부합하는 담화와 글의 수준

11) 공청회 자료집(2011. 7. 9)에 의하면 ‘국어 I’의 성격을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 수준에서의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국어II’의 성격을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교양 수준에서의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추후 고시될 2014년 수능의 성격에 따라 ‘교양’ 위주로 편성된 국어 I, II의 체계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에 부합하는 내용 중심으로 선택 과목을 선정한다는 취지에서 현대와 고대의 가치 있는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며, 재창조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 ‘고전’ 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격을 ‘국어 문화사의 고전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되 여타의 국어과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으로 하고, 목표는 ‘현대와 고대의 명문에 대한 비판적 창의적인 이해 능력 및 창조적 계승의 태도를 형성’으로 규정해 놓았다. 즉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영역의 현대 및 고대의 명문 중심으로 통합적 이해와 표현 활동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전’ 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다른 과목의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실제로는 범교과적인 성격을 띠게 하여 과목 선택 과정에서 특정 영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취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교과목이 성립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아울러 교과서 없는 교과목은 학교 현장에서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전’이 단순히 ‘고전 문학’으로 등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과목명을 ‘고전과 교양’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과서는 다양한 고전을 접하고, 고전의 가치를 평가하며 교양을 형성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개발한다.

둘째, 고전 작품을 교과서에 직접 수록하는 선집 형태가 아니라, 고전 선택의 기준, 고전 수용의 방법, 교양 형성을 위한 활동의 방향이나 예 등을 제공하는 지침서 형태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셋째, 이 교과목에서 다루는 고전은 ‘인간의 본성’, ‘사회와 갈등’, ‘문명과 기술’,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고전을 두루 포함한다.

넷째, 적절한 고전의 짧은 예나 고전에 대한 소개를 통해 고전 선택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다섯째, 개별 고전을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토론이나 논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교수·학습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의 디

지털 교과서, 교과서를 보조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민현식 외, 2011).

#### IV. 보론 및 맺음말

학회 연합에서 주도하는 논의는 3차 공청회까지이다. 이후 교과부 산하의 교육과정심의회와 내부 교열과정을 거쳐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수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 II의 성격을 교양(전문)에서 교양(심화)로 바꾸었다. 일반과 전문의 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어 I과 국어II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의 대응짝으로는 ‘심화’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참조하였다. 또한 화법에서 ‘표준 화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받아들였고, ‘공감적 경청’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공감적 듣기’로 규정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체계표로 완성되었다.

영역	국어 I – 교양(일반)			국어II – 교양(심화)		
화법	• 대화 원리의 이해	• 공감적 듣기와 문제 해결	•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 발표와 토론의 이해	• 비판적 듣기와 평가	• 매체 자료의 활용
독서	• 독서 특성의 이해	• 독서 상황과 독서의 방법	• 자율적 독서의 생활화	• 독서 문화의 이해	• 독서와 문제 해결	• 매체 자료의 분석과 비판적 태도
작문	• 작문 특성의 이해	•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	•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	• 작문 맥락의 이해	• 정보의 조직과 논거의 이해	• 매체의 특성과 글쓰기의 원리

국어 I – 교양(일반)		국어II – 교양(심화)		
문법	• 음운과 어휘의 이해	• 음운과 어휘 지식의 활용	• 올바른 국어 사용의 생활화	• 문장과 담화의 이해
문학	• 문학 갈래의 이해	• 작가의 개성 이해와 작품 감상	• 문학과 사회적 소통	• 국어의 변천과 발전 방향 • 한국 문학의 전승과 흐름 • 문학의 효용과 문학 활동

아울러 ‘고전과 교양’의 과목명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되었다. 고전과 교양이라고 하면 ‘국어 I, II’와 중복되는 면이 있고, 다른 과목과의 변별이 잘 되지 않으며, 또한 국어과의 교과 특성이 선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교양’을 삭제 혹은 대체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 대안으로 제기된 과목명으로는 ‘조상과 인류의 고전’, ‘국학 고전’, ‘국어 고전’, ‘고전과의 소통’, ‘고전과 읽기’ 등이 있었다. 이는 고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문학 작품으로서의 고전만이 아니라 국어 활동과 민속, 문법, 국어 자료 등을 아울러 망라해야 한다는 문제와 맞물려 있는 논의로서 방대한 시간과 공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결국 ‘교양’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어 ‘고전’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재구조화안과 동일한 과목명이다.

교육부 고시안에 대해 학회 연합으로 공모에 응하는 것이 온당한가, 과연 학회 연합은 학회 전 구성원의 대표성을 위임받았는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학회 연합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발은 누가 하는가 보다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교육과정은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과별 교육과정 개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영역별 밥그릇 싸움의 적나라한 기록일 수도 있다. 또한 각 영역의 나눠먹기식 배분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문적 영역이 중등학교 교과목에 여하히 설정되느냐 하는 것은 학문의 존재 가치와도 관계된다.

교과 교육은 어차피 교단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교단에 설 자리가 없는 교과교육은 학자들의 선문답일 수밖에 없다. 다만 바라는 것은 교과 교육의 영역별 그릇싸움이 학교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 문화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영역별 밥그릇 싸움이건 나눠먹기식이건 논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학문사적 기록이 될 것이다.\*

---

\* 본 논문은 2011. 6. 30. 투고되었으며, 2011. 7. 15. 심사가 시작되어 2011. 7.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위원회(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1차 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포럼)”, 연구자료 ORM 2010-11.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위원회(2009),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고교선택과목재구조화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민현식 외(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집, 2011.6.11.

민현식 외(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공청회 자료집, 2011. 7. 9.

박순경(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과목 재구조화 방안”, 교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송현정 외(2006), “국어과 선택 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원 연구보고 CRC 2006-17.

정구향 외(2009), “고교 국어 선택 과목 교육과정 개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9-43.

정구향 외(2010),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0-17.

## &lt;초록&gt;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과정의 비판적 검토**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김중신

교육과정은 교과의 시작이자 종결이지만 최근 우리의 교육과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2년만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었고, 다시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이라는 명목하에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그런데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과정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국어 교육 관련 학회에서는 학회 연합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공정하며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고는 학회 연합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던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에서 주로 선택과목 중심으로 개발 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먼저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에 의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하나는 ‘국어’에 대한 세부 성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종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셋째는 국어과 내용 영역 간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재구조화안은 고등학교 보통교과 선택과목은 ‘국어 I’, ‘국어II’, ‘국어사고와 표현’, ‘국어탐구와 이해’, ‘국어문화와 창의’, ‘고전’의 총 6과목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은 학회 연합의 연구진은 과목 명칭에 대한 논의, ‘국어 I’과 ‘국어II’의 성취 기준 설정 문제에 대한 논의, 셋째, ‘고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과목명은 ‘국어 I / 국어II /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 문학 / 고전과 교양’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국어 I’의 기본 성격은 교양(일반)으로 하고, ‘국어 II’의 기본 성격은 교양(전문)으로 하고, 국어과의 다섯 개 영역 중 핵심이 되는 성취 기준을 국어 I 과 국어II의 중핵적 성취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고전’의 성

격은 교과목명을 ‘고전과 교양’으로 하고 국어과 다섯 영역의 현대 및 고대의 명문 중심으로 통합적 이해와 표현 활동을 목표로 하는 과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이는 있었으나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의 핵심이 되었다.

교육과정 개발은 누가 하는가 보다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교육과정은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과별 교육과정 개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어쩌면 영역별 그릇싸움의 적나라한 기록일 수도 있다. 또한 교과목의 나눠먹기식 배분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문적 영역이 중등학교 교과목에 여하히 설정되느냐 하는 것은 학문의 존재 가치와도 관계된다. 교과 교육은 어차피 교단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교단에 설 자리가 없는 교과 교육은 학자들의 선문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심어】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과목 재구조화안, 학회 연합, 선택 과목 명칭, 국어 I, II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Development & Research Process  
in 2009 Revised Korean Subject Curriculum

Kim, Jung-sin

The curriculum is the beginning of subject. Also is a terminated point of it. However the curriculum of Korea is not like that. The curriculum is reorganized after 2 years.

For fairness and rationality, I think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academic society is responsible for the Korean curriculum development.

This writing will review a development process of 2009 Revised Korean Subject Curriculum.

According to 'elective restructurization plan, high school elective course name was 'Korean language I(국어 I)' and 'Korean language II(국어 II)', 'Korean thinking and expression', 'Korean exploration and understanding of language', 'Korean culture and the Creative', 'The canon' .

First of all, the research team of academic society union processed intensively the discussion of subject name and accomplishing standard of 'Korean language I, II' and 'character of The Canon'. Discussed, the names of subjects has been determined as 'Korean language I / Korean languages II / speech and writing / reading and grammar / literature / Canons and the liberal'

And the research team decided the basic character of Korean I' with culture (the public) and Korean II with culture(specialty). Also, they decided the main accomplishing standard of reading, writing, speech

listening, the grammar, the literature with core accomplishing standard of Korean I, II.

They also changed the name of 'Canons' with the 'Canons and liberal arts.' And they decided this subject with intergrated understanding and expressive activities for students in five areas of Korean subjects. Although there was few variations in last review process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uch discussion result was became the core of 2009 Revised Korean Subject Curriculum.

**【Key words】** 2009 Revised Korean Subject Curriculum, elective restructurization plan of high school elective,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academic society, elective course name, Korean language I, II